

불러지고,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장려된다.

최근에는 이 성가가 라틴 예법의 일부 공동체에 소개되었다.²⁶¹⁾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는 특별한 교회적 의미를 가지는 장엄 전례들은 이 성가가 로마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도록 되었다.²⁶²⁾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일치된 초기 교회 신심의 성숙한 열매인 이 고대 성가는²⁶³⁾ 하느님의 어머니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호소이자 간청이기도 하다. “교회의 다양한 전통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찬미의 보화는 교회가 다시 자신의 ‘두 허파로’, 곧 동방과 서방이 같이 완전히 숨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²⁶⁴⁾

261. 아카티스토스(Akathistos)에 덧붙여, 동방 전통에서 비롯된 다른 기도들도 대사를 받았다. 『대사 총람』,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23항, 68-69면 참조.

262. 1981년 6월 7일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서 아카티스토스를 부른 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와 에페소 공의회(431년)를 기념하는 것이었다. 이 성가는 또한 1981년 12월 10-12일에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450주년을 기념하면서도 불러졌다. 1988년 3월 25일 요한 바오로 2세가 산타 마리아 수프라 미네르바에서 아침 기도를 주재하는 동안 슬라브 예식으로 이 성가를 불렀다. 또한 칙서 「강생의 신비」(*Incarnationis Mysteriorum*)에서 회년에 대사를 받을 수 있는 신심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언급되었다. 2000년 12월 8일에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주재하는 비잔틴 가톨릭 교회 대표들과 함께 한 장엄 거행에서 그리스어, 고대 슬라브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아라비아어로 불러졌다.

263. 그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 학계에서는 이 성가가 칼케돈 공의회 이후 무렵에 작곡된 것으로 보고 있다. 800년경에는 베네치아 주교 크리스토퍼가 라틴어 곡을 만들었으며, 이는 서구 중세 시대의 신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733년 사망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게르마누스와 관련이 있다.

264. 「구세주의 어머니」, 34항.

제6장 성인과 복자 공경

원칙들

208. 성인 특히 순교자 공경은 오래된 교회 현상으로서, 성서와(사도 7, 54-60; 6, 9-11; 7, 9-17) 2세기 초반의 교회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다.²⁶⁵⁾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모두 언제나 성인들을 공경해 왔다. 교회는 이러한 공경의 신학적 토대를 굳건히 지켜 왔으며 명확하게 설명해 왔다. 특히 개신교가 생기고 전통적인 성인 공경의 일부 측면에 대한 의의가 제기된 이래로 더욱 그러하였다. 성인 공경과 교회 교리 사이의 관계 또한 명확하게 설명되어 왔다. 교회는 전례에서든 신심 실천에서든 성인 공경의 표현을 언제나 신중하게 규제하여 왔으며, 이들 뛰어난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 준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모범적인 증언을 늘 강조해 왔다.

209. 전례 현장은 전례 주년을 다루면서, 성인과 복자 공경의 교회적 실체와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그 밖에 순교자들과 다른 성인들의 기념도 교회는 연례 주기에 넣는다. 그들은 하느님의 온갖 은총을 통하여 완덕에 이르렀고, 이미 영원한 구원을 얻어 천상에서 하느님께 완전한 찬미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고 있다. 성인들의 탄일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265. 카이사리아의 성 에우세비우스, 「교회사」(*Historia Ecclesiastica*), V, XV, 42-47, 『그리스도교 원전』(SC) 31, 파리, 1952, 189-190면 참조.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은 성인들 안에서 파스카 신비를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그들의 모범을 신자들에게 보여 주고, 그들의 공로로 하느님의 은혜를 간청하여 받는다.”²⁶⁶

210. 성인에 관한 교회의 교리는 다음과 같은 더욱 넓은 맥락의 신조들 안에서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²⁶⁷ 곧 “성부와 성령과 함께 ‘유일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²⁶⁸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의 끊임없는 활동 때문에,²⁶⁹ 또한 교회가 언제나 성화에 필요한 수단들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그 안에 죄인들을 품고 있지만, “이미 지상에서 참된 성덕으로 불완전하게나마 드러나고 있다.”²⁷⁰ 교회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²⁷¹으로서, 성서에서 그 구성원들은 ‘성도’로 불린다(사도 9, 13; 1코린 6, 1; 16, 1 참조).

- “성인들의 통공”.²⁷² 이를 통하여 천상 교회와 “연속 상태”²⁷³에서 정화를 기다리는 교회, 그리고 지상에서 순례하는 교회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같은 사랑”²⁷⁴을 나눈다. 사실, 그

266. 전례 현장, 104항.

267. DS 150; 『로마 미사 전례서』, 미사 통상문,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268.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Divinitus Perfectionis Magister*, AAS 75(1983), 349년.

269. 교회 현장, 4항 참조.

270. 같은 곳, 48항.

271. 같은 곳, 9항.

272. 「사도신경」(*Symbolum Apostolicum*), DS 19.

27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2항.

274. 교회 현장, 49항.

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성령을 지니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며 그분 안에서 하나로 일치된다.

- 그리스도의 유일한 증개에 관한 교리(1디모 2, 5 참조).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리스도의 증개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하위의 증개들을 배제하지 않는다.²⁷⁵

211. 교회의 교리와 전례는 이미 “한 분이시며 삼위이신 하느님의 빛”²⁷⁶을 바라보고 있는 성인과 복자들을 신자들에게 제시한다. 그것은 그들이

- 보편적 성화 소명의 역사적 증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탁월한 열매인 그들은 하느님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 사이에서, 지극히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과 생활 신분에 있는 당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부르신다는 증거이며 기적이다(에페 4, 13; 골로 1, 28 참조).

-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제자들이며 따라서 복음 생활의 모범이기 때문이다.²⁷⁷ 교회는 시성 절차를 통하여 그들의 영웅적인 성덕을 인정하고, 신자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한다.

- 하느님의 영광과 자비를 끊임없이 노래하는 천상 예루살렘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파스카 여정은 이미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다.

- 아직도 지상을 순례하는 신자들의 증개자이자 벗이기 때문이다. 이미 하느님의 행복에 도취된 성인들은 형제자매들의 요구를 잘 알고, 기도와 보호로써 그들의 순례 여정에 동행한다.

275. 교회 현장, 49항 참조.

276. 피렌체 공의회, 「그리스인들을 위한 교령」(*Decretum pro Graecis*), DS 1305.

277. 『로마 미사 전례서』,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감사송 참조.

● 그들이 세운 지역 교회의 수호자이며(베르첼리의 성 에우세비우스), 모범적인 목자이고(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국가의 수호자, 곧 그 국가를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킨 사도들(인도의 성 토마스와 성 바르톨로메오)이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인물(아일랜드의 성 파트리치오)이며, 단체와 직업의 수호자(제단사들의 수호 성인 성 오모보노)이고, 출산(성 안나, 성 라이문도 노나토)이나 임종(성 요셉)과 같은 특별한 경우의 수호자이며, 특정한 은총을 얻기 위한 수호자(시력 회복을 위한 성 루치아) 등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삶을 저희에게 모범으로 주시고 저희가 성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기도의 도움을 받게 하시나이다.”²⁷⁸라고 선포함으로써 이를 고백한다.

212. 성인 공경의 궁극적 목적은 삶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주님의 탁월한 제자였던 사람들의 덕을 본받음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인간을 성화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교리교육과 다른 여러 형태의 교리적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성인들과 맺는 관계를 신앙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그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흠숭 예배(cultus laetiae)”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인 공경은 복잡한 외적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전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우리 사랑의 강렬한 실천에 있다는 것”²⁷⁹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278. 『로마 미사 전례서』, 성인 감사송 I.

279. 교회 헌장, 51항.

거룩한 천사들

213. 교회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성서가 보통 ‘천사’라고 부르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인 것들의 존재는 신앙의 진리이다. 성전 전체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듯이, 성서의 증언도 명백하다.”²⁸⁰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친다.

성전은 천사들 “주님 말씀 순히 들어 그 영을 시행하는 능한 자들”(시편 102[103], 20)인 하느님의 사자로 여긴다. 천사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이바지하며, “구원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파견된”(히브 1, 14) 일꾼들이다.

214. 신자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천사들이 등장한 수많은 예들을 잘 알고 있다. 천사들은 지상 낙원의 문을 닫았고(창세 3, 24 참조),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구하였으며(창세 21, 17 참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악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의 손을 막았고(창세 22, 11 참조), 비범한 이들의 출생을 알리며(판관 13, 3-7 참조), 정의로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지켜 주고(시편 90[91], 11 참조), 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며(이사 6, 1-4 참조), 하느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바친다(묵시 8, 3-4 참조). 신자들은 또한 도망가다 지친 엘리야를 천사가 도우려고 온 것(1열왕 19, 4-8 참조)과 불타는 가마 속에 던져진 아자리아와 그의 동료들을 도우러 온 것(다니 3, 49-50 참조)을 잘 알고 있으며, 토비아의 이야기에서 “영광스런 주님을 시종드는 일곱 천사 중 하나인”(토비 12, 15) 라파엘이 토비트와 그의 아들 토비아와 그 아내 사라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잘 알고 있다.

신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생애에서 천사들이 했던 역할도 잘

280. 『가톨릭 교회 교리서』, 328항.

알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앞으로 아기를 가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었으며(루가 1, 26-38 참조), 요셉에게 나타난 한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려 주었고(마태 1, 18-25 참조),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 주었다(루가 2, 8-20 참조). “주님의 천사”는 헤로데에게 위협받는 아기 예수님을 지켜 주었으며(마태 2, 13-20 참조),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천사들이 와서 시중들었고(마태 4, 11 참조), 고통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로하였으며(루가 22, 43 참조), 무덤에 모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였고(마르 16, 1-8 참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나타나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 주었으며 “예수께서는 ……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 11)라고 선포하였다.

신자들은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있기에”(마태 18, 10) 당신을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루가 15, 10)이라는 그분의 확실한 위로가 뜻하는 바를 잘 알 것이다. 신자들은 또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마태 25, 31)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고 역사의 문을 닫을 것을 안다.

215. 처음부터 천사들의 활동으로 구원받고 보호받았으며 언제나 그들의 “신비하고 능력 있는 도움”²⁸¹⁾을 받는 교회는 이러한 천사들을 공경하며 그들의 신속한 전구에 의존한다.

281. 『가톨릭 교회 교리서』, 334항.

전례 주년 동안, 교회는 구원 사건 안에서 거룩한 천사들이 했던 역할을 기념하며²⁸²⁾, 9월 29일(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 10월 2일(수호 천사 기념일)과 같이 특별한 날들에 그들을 기념한다. 교회에는 거룩한 천사들을 위한 신심 미사가 있으며 천사 감사송은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²⁸³⁾는 것을 선포한다. 거룩한 신비를 거행하는 교회는 천사의 찬가와 하나 되어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선포하고(이사 6, 3 참조),²⁸⁴⁾ 성찬의 희생 제사가 “존엄한 천상 제단에 오르도록”²⁸⁵⁾ 천사들의 도움을 간청한다. 성무일도의 아침기도는 천사들 앞에서 바친다(시편 137[138], 1 참조).²⁸⁶⁾ 교회는 신자들의 기도와 고해자들의 통회²⁸⁷⁾, 그리고 악마의 공격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²⁸⁸⁾ 거룩한 천사들의 도움에 맡긴다(묵시 5, 8; 8, 3 참조). 교회는 하느님께 천사들을 보내 주시어 세상 마지막 날 잠들어 있는 신자들을 지켜 주시기를,²⁸⁹⁾ 천사들이 임종의 고통 중에 있는 신자들을 도와주시기를,²⁹⁰⁾ 또한 장례식에서

282. 예수 부활 대축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주님 승천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에도 마찬가지이다.

283. 『로마 미사 전례서』, 천사 감사송.

284. 같은 곳, 감사기도, 거룩하시도다.

285. 같은 곳, 감사기도 제1양식, 성령 청원.

286. 성 베네딕토, 『규칙서』(Regula), 19, 5, CSEL 75, Vindobonae, 1960, 75면 참조.

287. 『고해성사 예식서』, 화해 예식, 표준판, 바티칸 인쇄소, 1974년, 54 참조.

288. 『성무일도』, 10월 2일 수호 천사 기념일, 저녁기도, 찬미가, “수호 천사들께 찬미드리세.”

289. 같은 곳, 주일과 대축일 제2저녁기도 후 끝기도, 마침기도 “우리 집을 찾아 주시어.”

290. 『병자성사 예식서』, 147.

는 천사들이 의로운 이들을 천상까지 동행하고²⁹¹⁾ 그들의 무덤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216. 수세기 동안 신자들은 천사들의 직무와 관련한 신앙의 가르침을 다양한 신심 실천 행위로 옮겼다. 여러 도시와 단체들이 거룩한 천사들을 그들의 수호자로 삼았으며, 노르망디의 몽 생 미셸, 피에몬테의 키우사의 성 미카엘, 아폴리아의 성 미카엘 가르가노와 같은 천사들을 기리는 유명한 순례지들이 각각 특정한 축일을 지정받아 세워졌고, 거룩한 천사들에게 바치는 성가와 기도문들이 만들어졌다.

대중 신심은 수호 천사에게 바치는 여러 형태의 신심을 포함한다. 바실리오 성인(†378년)은 “모든 신자는 일생 동안 그들을 지켜 주고 보호하며 이끌어 줄 수호 천사를 가진다.”²⁹²⁾고 가르쳤다. 이러한 유서 깊은 가르침은 성서와 교부들의 문서들로 더욱 공고해지며 여러 형태의 신심의 바탕이 된다. 클라리보의 베르나르도 성인(†1153년)은 수호 천사에 대한 신심 실천을 탁월하게 발전시킨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에게 수호 천사는 “하늘은 우리를 돕는 것은 무엇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며 이끌어 주려고 우리 곁에 있어 왔다.”²⁹³⁾

거룩한 천사들에 대한 신심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일정한 형태의 그리스도인 생활이 생겨났다.

● 인간을 위하여 거룩한 성덕과 위엄을 지닌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보내 주신 하느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린다.

● 언제나 하느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신심의 태도.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의 활동을 통하여 신자들을 정의의 길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의 평정과 확신. 수호 천사들에게 바치는 기도 가운데 ‘하느님의 천사’(Angele Dei)²⁹⁴⁾는 특히 널리 알려져 있으며, 흔히 가정에서 아침 기도와 저녁기도, 또는 삼중기도 때 바친다.

217.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에 대한 대중 신심은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도 잘못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 때때로, 신자들은 세상이 조물주의 다툼, 곧 선한 영혼과 악령, 또는 천사와 악마 사이의 끊임없는 다툼 아래 있으며, 인간은 무기력하게 그저 더욱 강력한 세력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러한 우주론은, 악마와 싸워 이기고자 복음과 겸손과 기도를 최우선에 두고 도덕적 투신을 요구하는 참된 복음의 전망과는 거의 무관하다.

●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점진적인 성숙과 무관하거나 거의 상관없는 일상사들을 도식적이거나 단순하게, 심지어 유치하게 해석함으로써, 모든 실패는 악마의 탓으로, 모든 성공은 수호 천사에게 돌릴 때 그러하다. 성서에 이름이 나와 있는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천사를 제외하고는 거룩한 천사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관습을 지양하여야 한다.

291. 『장례 예식서』, 표준판, 바티칸 인쇄소, 1969년, 50.

292. 카이사리아의 성 바실리오, 「에우노미우스 논박」(*Adversus Eunomium*) III, 1, PG 29, 656.

293.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Sermo XII in Psalmum "Qui habitat"*, 3, in *Sancti Bernardi Opera*, IV, Romae: Editiones Cistercienses, 1966, 459면.

294. 『대사 총람』, *Normae et Concessionnes*, 18항, 65면 참조.

요셉 성인

218.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면서 지혜로우신 섭리로써, ‘의로운 사람’(마태 1, 19 참조)이며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신 나자렛의 요셉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였던 다윗 가문에서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하고 그분의 아버지이자 보호자 역할을 하시게 된다.

이러한 사명 덕분에 요셉 성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신비들에 등장한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리셨다(마태 1, 20-21 참조). 요셉 성인은 베레헴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루가 2, 6-7 참조) 목자들의 경배와(루가 2, 15-16), 동방 박사들의 경배(마태 2, 11 참조)를 지켜보았으며, 아브라함의 계약의 규율에 따라 할례를 시키고(루가 2, 21 참조)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으며(마태 1, 21 참조), 주님의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를 성전에 바치고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제물을 바쳤으며(루가 2, 22-24; 출애 13, 2, 12-13 참조), 놀라운 마음으로 시므온의 예언을 듣는(루가 2, 25-33 참조) 등 그리스도의 양육에 관한 자신의 신앙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또한 요셉 성인은 성모님과 예수님을 이집트로 데려감으로써 헤로데의 박해에서 보호하였고(마태 2, 13-23 참조),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과일절을 지내러 갔으며, 열두 살이 된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려 애타우기도 하였다(루가 2, 43-50 참조). 요셉 성인은 나자렛에 살면서 예수님께 아버지로서 권위 있게 행동하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셨다(루가 2, 51 참조). 또한 요셉 성인은 예수님께 율법과 목수 일을 가르쳤다.

219. 요셉 성인의 덕성은 세세 대대로 교회의 성찰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 가운데 특히,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인 신앙, 하느

님의 뜻에 말없이 즉각 따르는 순종, 율법에 대한 존중과 이행, 참된 신심, 시련기에 보여준 곳곳함,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순결한 사랑, 아버지로서 충실한 권위 행사, 사려 깊은 과묵함 등을 꼽을 수 있다.

220. 대중 신심은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의 시작을 충실히 수호하도록 맡기신”²⁹⁵ 요셉 성인의 보호가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과 보편성, 그리고 “그의 지극히 소중한 보화”²⁹⁶를 파악하였다. 요셉 성인의 보호에 맡겨져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복자 비오 9세에 뜻에 따라 온 교회가 이 성조의 수호와 보호에 맡겨졌다.²⁹⁷ 하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독신 생활을 하며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마태 19, 12 참조)에게 “요셉 성인은 정결의 모범이며 보호자이다.”²⁹⁸ 나자렛의 목수로서 탁월한 모범이 되는 요셉 성인은 노동자와 장인들의 수호자이며,²⁹⁹ 신심 전통에 따르면 요셉은 임종의 고통 중에 성모님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임종자들의 수호자이기도 하다.³⁰⁰

295. 『로마 미사 전례서』,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본기도 참조.

296. 교황청 예부성령, 교령 *Quemadmodum Deus*, in *Pii IX Pontificis Maximi Acta*, Pars Prima, vol. 5, Graz: Akademische Druck- u. Verlagsanstalt, 1971, 282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Redemptoris Custos*, 1항, AAS 82(1990), 6면 참조.

297. 1870년 12월 8일, 앞에서 말한 교령 *Quemadmodum Deus*는 요셉 성인을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언하였다.

298. 레오 13세, 회칙 *Quamquam Pluries*, 1889. 8. 15., in *Leonis XIII Pontificis Maximi Acta*, IX, Romae: Typographia Vaticana, 1890, 180면.

299. 비오 12세, *Allocutio ad Adscriptos Societatibus Christianis Operariorum Italicorum*(A:C:L:I), 1955. 5. 1., AAS 47(1955), 402-407면, 5월 1일을 노동자 성 요셉 축일로 제정함을 선언(교황청 예부성령, 훈령, 1956. 4. 24., AAS 48(1956), 237면 참조).; *Redemptoris Custos*, 22-24항, AAS 82(1990), 26-28면 참조.

300.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도, *De Sancto Joseph Sponso Beatae*

221. 요셉 성인의 인격과 역할은 흔히 전례를 통해 기념되며, 특히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아기와 관련하여 대림 시기,³⁰¹ 성탄 시기, 특히 성가정 축일, 그리고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과 성 요셉 기념일(5월 1일)에 기념된다.

요셉 성인은 또한 로마 교회법의 고유 성인 기도와 성인 호칭 기도에도 언급된다.³⁰² ‘임종자를 위한 기도’에 성조께 드리는 청원 기도가 나오며³⁰³, 이 세상을 떠난 죽은 이들의 영혼이 “천주의 모친 동정녀 성 마리아와 성 요셉과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³⁰⁴ 비는 공동체 기도에도 나온다.

222. 요셉 성인은 대중 신심과 수많은 대중 전통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수요일을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의 날로 지키는 관습은 적어도 17세기 이후에 대중화되었으며, 7주간 수요일을 포함한 몇몇 신심 행위를 낳았다. 신자들의 열성적인 신심³⁰⁵, 신자들이 날마다 바치는 교황 레오 13세의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와 같은 기도³⁰⁶, 또한 교황 비오 10세 성인이 승인한 성 요셉 호칭 기도³⁰⁷, 또 요셉 성인의 칠고 칠락을 회상하는 성 요셉

찬미 기도 등이 그것이다.

223. 성 요셉 대축일이(3월 19일) 교회가 세례를 준비하고 주님의 수난을 기억하는 데에 주의를 집중하는 시기인 사순 시기에 온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전례와 대중 신심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만든다. 따라서 ‘성 요셉 성월’의 전통적인 관습은 전례 주년과 일치되어야 한다. 사실, 전례 쇠신 운동은 신자들에게 사순 시기가 지나는 의미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려는 시도였다. 대중 신심의 다양한 표현들에 필요한 적응을 할 수 있다면,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을 자연히 신자들에게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들은 “모든 생활 신분을 넘어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장려되어야 하는 …… 특별한 모범”³⁰⁸을 언제나 기억하여야 한다.

성 요한 세례자

224. 즈가리야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성 요한 세례자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 있다. 그의 부모는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루가 1,6) 사는 사람들로 여겨졌다. 성 요한 세례자는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성모님의 태중에 계신 구세주를 알아보았고(루가 1,39-45 참조), 그의 탄생에는 놀라운 기적이 따랐으며(루가 1,57-66 참조), 광야로 들어가 금욕과 참회의 삶을 살았다(루가 1,80; 마태 3,4 참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예언자”(루가 1,76)인 그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으며(루가 3,2 참조), “그는 요르단 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루가 3,3). 그는 새로운 엘리야처럼 겸손하면서도 강력하게, 그의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

Virginis, art. II, cap. III, in *S. Bernardini Opera omnia*, t. VII, Ad Claras Aquas: Typis Collegii Sancti Bonaventurae, 1959, 28면 참조.

301. 특히 전례의 중심 주제가 우리 주님의 죽보(마태 1,1-17: 12월 17일)나 요셉에게 전하는 천사의 메시지(마태 1,18-24: 12월 18일)인 날에; 가해 대림 제4주일: 두 인용문은 모두 예수님께서 다윗 가문 출신인 요셉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마태 1,1)인 메시아이심을 강조한다(마태 1,20; 루가 1,27, 32 참조).

302. 『로마 전례력』, *Litanae Sanctorum*, 1969, 33-39면 참조.

303. 『병자성사 예식서』, 143 참조.

304. 같은 곳, 146 참조.

305. 『대사 총람』, *Piae invocationes*, 83면 참조.

306. 같은 곳, 대사를 얻는 다른 기도, 19항, 66면 참조.

307. 같은 곳, 22항, 68면 참조.

308. *Redemptoris Custos*, 1항, AAS 82(1990), 31면.

켰으며(루가 1, 17 참조),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요르단 강에서 구세주에게 세례를 주었다(마태 3, 13-16 참조).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린 양”(요한 1, 29), “하느님의 아드님”(요한 1, 34),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의 신랑(요한 3, 28-30 참조) 이시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성 요한 세례자가 영웅적으로 진실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헤로데는 그를 옥에 가두고 목을 베었다(마르 6, 14-29 참조). 이로써 그는 그의 비범한 출생과 예언자적 선포에서 그러했듯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전조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루가 7, 28)라는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그를 칭찬하였다.

225. 성 요한 세례자 공경은 고대부터 그리스도교 교회에 있어 왔으며, 아주 초기부터 대중적인 형태와 의미를 지녔다. 우리는 성 요한 세례자의 죽음(8월 29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생과 함께 그의 탄생(6월 24일)도 경축한다.

요한은 요르단 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세례대들이 요한에게 봉헌되었으며, ‘세례자’ 요한의 그림이나 상을 여러 세례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감내한 가혹한 옥살이와 죽음 때문에, 요한은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나 신앙을 증언하다가 옥에 갇힌 이들의 수호 성인이다.

아마도, 요한 세례자가 태어난 날(6월 24일)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12월 25일)과 관련하여 정해졌을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따르면, 성모님께서 우리 구세주를 잉태하셨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 6개월이었기 때문이다(루가 1, 26, 36 참조). 6월 24일은 북반구의 태양 주기와도 관련되어 있다. 태양이 황도의 남쪽을 향하여 돌면서 기울기 시작하는 때에 이 축일을 거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빌려온 것은 예수님을 일컬어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 30)고 했던 요한 세례자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빛을 증언하는 요한의 사명(요한 1, 7 참조)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전야의 모닥불 축복 관습의 기원이며, 적어도 이 관습에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교회는 그러한 불을 축복하며, 신자들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하느님의 “꺼지지 않는 빛”에 다다를 수 있도록 기도한다.³⁰⁹

성인과 복자 공경

226. 전례와 대중 신심의 상호 영향은 성인과 복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공경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여기서, 전례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성인 공경의 중요한 형태들을 간략하게라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러한 형태들이 대중 신심의 표현들을 밝히고 이끌어야 한다.

성인 기념

227. 성인을 기리는 축일의 거행은 — 이와 관련한 내용은 중들의 중(servatis servandis)인 복자에게도 해당된다. — 분명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공경의 표현이다. 많은 경우에, 이는 성찬례의 거행을 암시적으로 포함한다. 그러한 날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고 때로는 복잡한 공경 행사로서, 다양한 역사적 전례적 문화적 요소들이 그 안에서 언제나 쉽게 조화를

309. *Rituale Romanum* Paul V Pontificis Maximi iussu editum ... Pii XII auctoritate ordinatum et auctum, Tit. IX, cap. III, 13, in *Benedictio Rogi in Vigilia Navitatis S. Ioannis Baptistae* 참조.

이루지는 못한다.

로마 교회와 다른 지역 교회들에서 순교자들이 순교한(곧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날에 이들을 기념하고,³¹⁰ 지역 교회의 창시자(ecclesiae conditor)나 이들 지역 교회를 이끌었던 다른 성인 주교들을 기념하며, 신앙의 증인들이나 주교좌 성당의 봉헌과 같은 기념일들을 기억함으로써 특정한 성인들이 사망한 날짜와 장소를 기록한 지역 교회 달력이 점차 만들어졌다.

지역 교회 달력에서 곧 순교록이 발전하였다. 『시리아 순교록』(5세기), 『이에로니무스 순교록』(6세기), 『베데의 순교록』(8세기), 『리옹의 순교록』(9세기), 『우사르도의 순교록』(9세기)과 『아돈의 순교록』(9세기)이 그것이다.

1584년 1월 14일, 그레고리 13세는 전례에서 사용하도록 『로마 순교록』 표준판을 발표하였다. 2001년 6월 29일, 요한 바오로 2세는 공의회 이후 처음으로 『로마 순교록』 개정판을 반포하였다.³¹¹ 이 개정판은 로마 전통을 바탕으로 하며 역사적인 여러 순교일을 포함시켰으며, 여러 성인과 복자들의 이름을 수록하고 있다. 『로마 순교록』은 주님의 성령께서 교회 역사의 여러 장소, 여러 시대에 교회 안에 쌓아 올리신 성덕의 놀라운 부요를 증언하고 있다.

310. 순교자 ‘탄생일’ 또는 사망일의 전통. 이러한 관례는 적어도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310, 1, PL 38, 1412-1413.

311. *Martyrologium Romanum 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Secundi instauratum auctoritate Ioannis Pauli PP. II promulgatum*, Editio Typica, Typis Vaticanis, 2001.

228. 성인을 기리는 예식의 날짜와 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로마 전례력』(*Calendarium Romanum*)의 발전은 『로마 순교록』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바람에 따라, 현재의 『로마 전례력』은³¹² “참으로 보편적인 중요성을 지닌 성인들”³¹³을 기념하는 축일들만 수록하고, 다른 성인들에 대한 언급은 해당 국가와 지역, 교구나 수도 가족의 개별 달력들에 유보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목상의 실천을 위해 『로마 전례력』의 기념일 수를 줄이게 된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된 까닭은 “성인들의 축일이 구원의 신비 자체를 기억하는 축일보다 앞서지 않도록”³¹⁴ 하기 위해서였다. 수세기 동안, “특전도 많아지고 축일도 증가되고 축일들의 8부 축제도 많아져서 전례 주년의 여러 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수 신심에 젖게 되어 어느 정도 주요한 구원의 신비를 생각하지 않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되었다.”³¹⁵

229. 앞에서 살펴본 『로마 보편 전례력』(*Calendarium Romanum Generale*)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내용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사목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성인들의 축일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에 대한 기념이 연관되어 있음을 신자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성인들의 축일이 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강

312. 『로마 전례력』은 바오로 6세가 1969년 2월 14일, 자의 교서 *Mysterii Paschalis*와 함께 발표하였다(AAS 61(1969), 222-226면).

313. 전례 현장, 111항.

314. 위와 같음.

315. 바오로 6세, 교황 교서 *Mysterii Paschalis*, I, AAS 61(1969), 222면.

조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중들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위업을 선포하려는”³¹⁶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인들에게 바쳐진 축일은 결국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축일이다.

● 구원 역사에서 특별한 사명을 맡았거나, 요한 세례자 성인(6월 24일), 요셉 성인(3월 19일),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성인(6월 29일), 사도들과 복음사가들, 마리아 막달레나 성인(7월 22일), 마르타 성인(7월 29일), 스테파노 성인(12월 26일) 등과 같이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성인들의 축일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을 신자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 언제나 필요하다.

● 신자들에게 개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인들, 예를 들면 개별 교회의 수호 성인이나 초기 공동체에 복음을 처음 선포했던 성인들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지도록 권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로마 보편 전례력』에 나와 있는 성인들의 ‘보편성’의 개념과, 대축일, 축일, 기념일(의무 또는 선택)과 같은 성인 축일의 등급의 의미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축일들

230. 전례와 대중 신심은 성인들의 축일에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성인의 날’은 전례나 다른 대중 신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경배의 표현을 가진다. 그러한 경배 표현들은 때때로 상충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은 『로마 미사 전례서』와 『로마 보편 전례력』에

316. 전례 현장, 111항.

실려 있는 성인과 복자들의 기념일의 등급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들 성인과 복자들이 개별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지역의 주보 성인, 교회의 명칭, 수도회 설립자 또는 그 주보 성인). 특정한 축일을 그 다음 주일로 이동하는 것에 관한 조건들과 전례 주년 동안 어떤 특정한 시기에 성인 축일을 거행하는 것에 관한 규범들도 고려하여야 한다.³¹⁷

앞에서 말한 규범들은 사도좌가 전례에서 지니는 권위에 대한 존중심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경외감과 전례의 정신을 촉진하려는 바람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일부 축일을 옮겨 지내는 이유들, 예를 들면 사순 시기에서 연중 시기로 옮기는 이유들이 사목 실천에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곧 성인 축일을 전례에서는 새로운 날짜에 거행하지만 대중 신심에서는 계속해서 예전 날짜를 지킬 경우, 그러한 관습은 전례와 대중 신심 사이에 유지되어야 할 일치를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중복과 혼란, 무질서를 낳는다.

231. 성인 축일은 전례적으로나 사목적으로 언제나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이는 성인 공경의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다시 말하여, “성인들 안에서”³¹⁸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다짐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성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탁월한 지체들이기

317. 『로마 전례력』, 일반 지침(Normae universales), 58-59; 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De Calendariis Particularibus*, 8-12, AAS 62(1970), 653-654면.

318. 『성무일도』, 성인 공통, 초대송 후렴.

때문이다.

또한 성인의 모습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시는, 현대 사회의 전망을 염두에 두면서, 성인과 관련된 전설적 사건이나 치유 능력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성인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그의 성덕의 탁월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증언의 효력, 그의 특별한 은사가 교회에 이바지한 방식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32. ‘성인의 날’은 또한 축제일로서 인간학적 중요성을 지닌다. 축제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반영하며,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갈망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축제는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면서 생명과 창조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축제는 또한 반복되는 일상과 형식적인 관습, 그리고 생계를 꾸려야 할 의무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의 자유와 참 행복을 지향하는 인간의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문화적 표현으로서 축제는 어떤 민족의 특별한 정신과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진정한 민속 관습을 강조한다. 사교의 시간으로서 축제는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만남을 갖는 기회가 된다.

233. 종교적 인간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요소들이 ‘성인의 날’의 참된 특성을 침해하고 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본당 ‘수호 성인 축일’은 그것의 기원을 이루는 그리스도교적 내용, 곧 그 지체 가운데 한 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바치는 공경이 결여되면 단순한 민속 행사나 사교 행사가 되어, 기껏해야 특정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한 사교 행사에 그치게 된다.

인간학적 관점에서, ‘축제 거행’은 때때로 축일의 참된 의미와 크게 상충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로 규정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축일을 거행하는 것은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느님의 활동과 개으름이 아닌 적극적인 ‘휴식’에 인간이 동참하게 해 주는 것이다. 축제는 무절제한 이기심이 아닌 소박한 기쁨의 표현이며, 새로운 형태의 더욱 간교한 예속을 낳는 모호한 기분 전환의 기회가 아닌 참된 자유의 표현이다. 따라서 윤리적 행동 규범을 어기는 것은 주님의 법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축일 거행의 인간학적 구조도 해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성찬례 거행

234. 성인이나 복자 축일의 거행은 전례를 통하여 성인들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성찬례 거행은 천상 성인들과 친교를 나누는 특별한 순간이다.

말씀 전례에서 구약의 독서는 위대한 성조들과 예언자들, 또는 덕성과 주님의 법에 대한 사랑이 탁월한 여러 다른 인물들을 자주 언급한다. 신약성서는 주님과 친분을 나누었던 사도들과 다른 여러 성인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성인들의 삶은 때로 복음 정신을 매우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복음을 조금만 읽어 보아도 그들의 인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찬례 거행의 맥락에서, 성서와 그리스도교 성인전의 관계는 성인들의 삶을 밝히는 특정한 성서 본문들을 함께 보여 주는 많은 성인 성녀 공통 미사 기도문을 만들게 하였다. 이러한 관계와 관련하여, 성서는 완전한 사랑을 향한 성인들의 여정의 방향을 잡아 주고 이끌어 주며, 성인들은 말씀의 살아 있는 해석이 된다.

성찬례 거행 동안 여러 시점에 성인들이 언급된다. 감사기도 제1양식은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의 제사와 대사제 멜키세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³¹⁹⁾을 말하고 있다. 이 감사기도는 또한 성인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전구를 간청함으로써 우리와 성인들의 통공을 표현하는 기회가 된다.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베드로와 바오로, 안드레아와 (……) 그 밖의 모든 성인을 생각하며 공경하오니 그들의 공로와 기도를 보시어 모든 일에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소서.”³²⁰⁾

성인 호칭 기도

235. 성인 호칭 기도는 7세기부터 로마 교회에서 사용되어 왔다.³²¹⁾ 성인 호칭 기도의 전례적 구조는 치밀하고 단순하며 대중적이다. 교회는 부활 전야, 세례대 축복 전, 세례성사 거행 동안, 주교직과 사제직과 부제직의 성품 수여, 동정녀 봉헌과 수도자 서원 예식, 성당이나 제대의 봉헌 예식, 사제 제일 때, 장엄 미사와 참회 행렬 때, 구마 예식 중에 악령을 쫓아낼 때, 임종자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길 때와 같은 몇몇 중요한 성사나 더욱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다른 여러 경우에 성인 호칭 기도로 성인들에게 기도한다.

성인 호칭 기도는 전례 전통과 대중 신심에서 비롯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인들의 전구에 대한 교회의 믿음과 천상

예루살렘 교회와 순례 여정 중에 있는 지상 교회가 나누는 친교의 경험을 표현한다. 개별 교회나 수도회 달력에 있는 복자들의 이름을 성인 호칭 기도에서 부를 수 있다.³²²⁾ 물론, 교회가 공경을 승인하지 않은 이들의 이름은 이 호칭 기도에 사용될 수 없다.

성인들의 유해

236.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안에서는 전통에 따라 성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진정한 유해와 성화상도 존중한다.”³²³⁾고 상기시킨다. ‘성인들의 유해’라는 말은, 영웅적인 성덕으로 지금은 천상에 살지만 한때 지상에 살았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탁월한 지체들이며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인(1고린 3,16; 6,19; 2고린 6,16 참조)³²⁴⁾ 성인들의 몸 또는 몸의 중요한 부분을 뜻한다. 성인들의 물건, 예를 들면 개인 소지품이나 옷가지, 성인들이 손으로 쓴 원고, 또한 유포(油布)나 천 조각같이 그들의 시신이나 무덤에 닿았던 물건들과 성인들이 공경하던 성화상도 유해로 간주된다.

237. 『로마 미사 전례서』는 “제단을 축성할 때에 그 속에 성인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관습은 보존되는 것이 좋다.”³²⁵⁾고 재확인한다. 이러한 관습은 지체들의 희생이 제대의 희생 제사에 기원을 둔다는 것을 뜻하고,³²⁶⁾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이루는 친교를 상징한다. 교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319. 『로마 미사 전례서』, 감사기도 제1양식, 기념과 봉헌.

320. 같은 곳, 성인들을 기억하며. 감사기도 제3양식에는 그날의 성인이나 수호자 기념에 관한 문장이 나온다.

321. *Ordo Romanus*, in A. Andrieu (ed.), *Les “Ordines Romani” du Haut Moyen-Age*, III, Lovain: Spicilegium Sacrum Lovaniense, 1951, 249면. 대사에 관해서는 『대사총람』, 대사를 읽는 다른 기도, 22항, 68면 참조.

322. 교황청 경신성사청, *Notificatio de Cultu Beatorum*, 13항, *Notitiae* 35(1999), 446면 참조.

323. 전례 헌장, 111항; 트리엔트 공의회, 「성인 공경 등에 관한 교령」, 1953, 12, 3., DS 1822 참조.

324. 위와 같음.

325. 『미사 경본의 총지침』, 266항.

326. 『로마 주교 예식서』(*Pontifical Romanum*), *Ordo dedicationis ecclesiae et altaris*, 표준판, 바티칸 인쇄소, 1977, cap. IV, 일러두기, 5항 참조.

시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증언하도록 부름 받는다.

여러 가지 대중적인 관습이 전례의 이러한 탁월한 경배 표현과 결합되어 왔다. 신자들은 성인들의 유해를 깊이 공경한다. 유해 공경 관습에 관하여 신자들을 사목적으로 적절하게 지도하려면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신자들에게 공경의 대상으로 전시하는 유해의 확실성을 보장한다. 미심쩍은 유해를 공경하도록 신자들에게 전시하였다면, 적절한 사목적 판단으로 신중하게 철수하여야 한다.³²⁷

- 유해를 지나치게 작게 조각내는 것을 막는다. 그러한 관습은 인체에 대한 마땅한 존중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례 규범은 유해가 “인체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³²⁸고 규정한다.

- 신자들에게 유해를 수집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고한다. 예전에 이러한 관습은 유감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 사기나 불법 거래,³²⁹ 미신의 가능성을 방지한다.

유해에 입맞추기, 등불과 꽃으로 유해를 장식하기, 유해를 들고 행렬하기, 성인의 유해를 병자나 임종자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거나 성인들에게 치유를 간구하는 데에 사용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성인들의 유해에 대한 대중의 공경은 신앙으로 고무되어 존중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성인들의 유해는 제대 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 제대는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³³⁰

327. 『로마 주교 예식서』(Pontifical Romanum), Ordo dedicationis ecclesiae et altaris, cap. II, 일러두기, 5항 참조.

328. 같은 곳, 5항.

329. 교회법 제1190조 참조.

330. 성 암브로시오, 「서간집」(Epistula), LXXVII(MAUR. 22), 13.

성 상

238. 제2차 니케아 공의회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우리 교부들의 가르침과 가톨릭 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성인들의 성상 공경을 적극 옹호하였다. 곧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실히하고도 명확하게 결정한다. 생명을 주는 소중한 우리 구원의 십자가상과 마찬가지로, 공경을 위한 성상들은 모자이크로 만들거나 다른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 하느님의 성당 안이나 성당 기물들, 제의, 벽 위에, 그리고 신자들의 집안과 거리에 모실 수 있다. 하느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 티 없이 깨끗하신 어머니, 천주의 성모님, 천사들과 성인들, 의인들의 성상도 마찬가지이다.”³³¹

니케아 공의회 교부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골로 1, 15)이신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에서 성화상의 사용 근거를 찾는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성화상의 새로운 ‘경륜’이 열렸다.”³³²

239. 성상 공경은 그림이든 상이든, 양각한 작품이든 다른 표현 양식이든 전례 현상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중 신심의 한 중요한 측면이다. 신자들은 교회나 가정에서 성상 앞에서 기도하며, 꽃이나 등불, 보석으로 성상을 장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존경을 드리며, 성상을 들고 행렬을 하기도 하고, 그 주변에 감사의 봉헌물을 걸어 두며, 야외 순례지나 거리에 성상을 비치하기도 한다.

CSEL 82 3, Vindobonae, 1982년, 134-135년; 『로마 주교 예식서』, Ordo dedicationis ecclesiae et altaris, cap. IV, 일러두기 10항 참조.

331.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성화상에 관한 정의」(Definitio de sacris imaginibus), 787.10.23., DS 600.

33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59항.

성상 공경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신학적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자들은 공의회들³³³이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³³⁴에 명시된 성상 공경에 관한 교회의 교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240.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상은

● 복음 메시지를 성화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형상과 계시된 말씀이 서로 명백해진다. 교회의 전승은 성상이 “복음 메시지의 말씀”³³⁵에 일치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 전례의 모든 표징과 마찬가지로, 성상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 성인들의 성상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³³⁶

● 성상은 “세상 구원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성사 거행 안에서 우리와 결합되는”³³⁷ 성인들인 우리 형제들을 기념하는 것이다.

● 성상은 기도의 보조 도구이다. 거룩한 성상을 바라보는 것은 기도를 도와주며, 성인들을 통하여 당신 은총으로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이끌어 준다. 또한 성인들을 본받도록 자극한다. “이러한 성상을 오래 바라보면 볼수록,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기억이 더욱 생생해지기”³³⁸ 때문이다. 신자들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한다.

333.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성화상에 관한 정의」, 787. 10. 23., *DS* 600-603; 트리엔트 공의회 「성인 공경 등에 관한 교령」, 1562 12. 3., *DS* 1821-1825; 전례 현장, 111항 참조.

33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59-1162항 참조.

335.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성화상에 관한 정의」, *Conciliorum Oecumeniorum Decreta*, 135면(『신앙 규정 편람』(*DS*)에 실리지 않음).

33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61항.

337. 같은 곳, 1161항.

338.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성화상에 관한 정의」, *DS* 601.

그것은 성령의 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으며 자신의 고유한 소명에 충실한 “새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

● 성상은 일종의 교리교육이다. “그림이나 다른 매체로 표현된 우리 구원 신비의 역사를 통하여 신자들은 신앙을 배우고 더욱 굳건히 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신앙의 조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명상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³³⁹

241. 신자들은 성상 경배의 상대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는 성상 그 자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공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상에 “마땅한 경의와 경배를 바치는 것은 그러한 공경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신성이나 권능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며, 성상에 무언가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교도들이 우상에 대해서 그러하였듯이 그것에 신뢰를 두기 때문이 아니다. 성상에 바치는 경의는 그것이 상징하는 원형에게 바치는 것이다.”³⁴⁰

242. 앞서 말한 것에 비추어, 신자들은 성상을 화신(化身)의 수준까지 격상시키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부 성상이 국가나 도시, 특정 단체의 종교 문화를 구현할 만큼 지나친 신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그러한 성상에 바치는 공경에 바탕이 되는 은총의 관점에서, 또 성상을 둘러싼 역사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어떤 민족이 자신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며, 하느님을 찬미하고, 언제나 그들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마태 7, 7; 루카 11, 9; 마르 11, 24 참조) 주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그러한 사건들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써 사랑과 희망이 풍부해지고 그리스도교 신자의 영성 생

339. 트리엔트 공의회, 「성인 공경 등에 관한 교령」, *DS* 1824.

340. 같은 곳, *DS* 1823.

활이 성장하게 된다.

243. 성상은 본성상 거룩한 표징의 영역과 예술의 영역에 속한다. 이들은 “가끔 최고의 예술품으로서도 종교적 고상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느님께로부터 발하여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움의 빛을 보여 주는 듯하다.”³⁴¹⁾ 그러나 성화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심미적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신비를 지향하는 것이다. 때로 성상의 예술적 측면이 지나친 중요성을 띠어서, 성상을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술적’ 주제로 보기도 한다.

동방 교회와는 달리, 서방 교회에서 성상의 생산은 수세기 동안 엄격하게 시행되어 왔던 교회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라틴 교회가 성상 감독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했다는 뜻은 아니다. 신앙에 거스르거나 경박한 것, 신자들을 오류로 이끌 수 있는 것, 인간적 체험이 결여된 추상에서 비롯된 것이나 인간 본성을 해치는 성상들의 전시는 여러 경우에 금지되어 왔다. 일부 성상들은 참된 영성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표본들이다. 거룩한 장소들에서 성상들을 제거하려는 경향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심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비난받아야 한다.

대중 신심은 특정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성상들, 곧 성인들을 명백하게 드러내거나, 출산, 고통, 혼인, 일, 죽음과 같은 인간 삶의 중요한 특정 시점들을 묘사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징물들을 장려한다. 그러나 대중 종교 예술이 단순한 유희적 석판화로 격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례에서는 성화상학과 예술, 특정한 문화 시기의 그리스도교 예술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

341. 『축복 예식서』, 공적 경배를 위한 성상의 축복, 985항.

244. 교회는 성상들이 지닌 경배의 중요성 때문에 성상을 축복한다. 이는 특히 공적인 경배를 위한 성인들의 성상인 경우에 그러하다.³⁴²⁾ 그럴 때 교회는 특정 성인의 인도에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성인의 모범을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신 성인의 완덕을 바라 뵈옵게 하소서.”³⁴³⁾ 하고 기도한다. 교회는 교회나 다른 거룩한 장소에 성상을 현시하기 위한 규범을 발표해 왔으며, 이는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³⁴⁴⁾ 제단의 제단에 성상을 현시해서는 안 된다. 제단에는 성인들의 유해도 현시할 수 없다.³⁴⁵⁾ 교구 직권자는 부적합하거나 오류나 미신에 빠지게 하는 성상들이 신자들의 경배를 위하여 현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 렬

245. 행렬은 보편적 특성의 경배 표현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종교적 의미를 가진다. 행렬에서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는 특히 중요하다. 성서의 예에서 영감을 받아(에스 14, 8-31; 2사무 6, 12-19; 1고린 15, 25-16, 3), 교회는 강조점이 다른 여러 가지 전례 행렬을 제정하였다.

● 일부 행렬들은 그리스도 생애의 구원 사건들을 기억한다. 예를 들면, 2월 2일의 행렬은 성전에서 주님을 바치심을 기념하고(루가 2, 22-38 참조),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는 메시아이신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기하며(마태 21, 1-10; 마르 11, 1-11; 루가 19, 28-38; 요한 12, 12-16 참조), 부활 전야의 행렬은 주님께서 무덤의 어둠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넘어가신 사건을 기념한다.

342. 『축복 예식서』, 성인들의 성상 축복, 1018-1031항.

343. 같은 곳, 1027항.

344. 교회법 제1188조; 『미사 경본의 충지침』, 278항 참조.

345. 『로마 주교 예식서』, *Ordo dedicationis ecclesiae et altaris*, cap. IV, 일러두기, 10항 참조.

이는 구약의 모든 사건을 종합하고 초월하며, 특히 세례와 장례 예식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성취될 성사적 ‘여정’을 미리 알려 준다.

● 다른 행렬들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의 성체 행렬과 같은 봉헌 행렬이다. 거리를 가로지르는 성체는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감사의 뜻과 신앙 승배를 불러일으키며, 은총과 축복의 근원이 된다(사도 10 38).³⁴⁶ 각 주교회의가 날짜를 정하는 3일 기도 행렬은 눈발과 인간 노동에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 주 시기를 공적으로 간청하는 것으로, 회개의 특성을 지닌다. 11월 2일 묘지로 향하는 행렬은 죽은 신자들을 기리는 것이다.

● 또 다른 행렬들은 일정한 전례 행위에서 요구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예배 공동체가 정해진 지점에서 출발하여 목격지 교회를 향하는 사순 시기 동안의 십자가의 길 행렬이나, 성목요일에 축성된 성유를 본당에 받아들이기 위한 행렬, 성금요일의 십자가 공경 행렬, 부활절 저녁기도에서 시편과 찬가를 부르면서 세례대로 가는 세례 받은 이들의 행렬³⁴⁷, 성품 교역자의 입장, 복음 선포, 예물 봉헌, 그리스도의 몸과 이루는 친교 등 성찬례 거행과 관련된 행렬, 아직도 관습이 남아 있는 곳에서는 병자에게 노자성체를 가져다주는 행렬, 사망한 신자들을 집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묘지까지 옮기는 장례 행렬, 유해의 이전을 위한 행렬 등이 있다.

246. 중세부터 봉헌 행렬들은 대중 신심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며 바로크 시대에는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도시나 거리, 직업 조합의 수호 성인들의 유해나 성상, 초상화 등을

들고 행렬을 함으로써 그 성인들을 공경하였다.

참된 형태의 행렬은 대중 신앙의 표현이 된다. 행렬은 흔히 문화적 의미를 지니며 사람들의 종교심을 다시 일깨울 수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봉헌 행렬도 다른 신심 실천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성사보다 신심을 우선함으로써 성사를 부차적인 것으로 격하시키거나, 내적인 마음 자세보다는 외적인 형식을 우선하며, 행렬을 축일의 절정으로 여기거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일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가 단순히 ‘성인(聖人)들의 종교’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 행렬 자체가 신앙의 표현이 아닌 단순한 볼거리나 세속적인 행진으로 격하될 위험 등이다.

247. 신앙의 표현인 행렬의 본질을 유지하려면, 신자들에게 그 신학적 전례적 인간학적 측면에 관하여 세심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조건을 나타내는 표지가 행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렬은 이 지상의 길을 거쳐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 행렬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일반 사회의 구조 안에서 주님께 바쳐야 할 신앙의 증거를 보여주는 표지이다. 행렬은 또한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교회를 파견하신 주님의 명령과(마태 28 19-20 참조) 교회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선교 임무를 드러내는 표지이다.

전례적 관점에서, 행렬은 대중적 성격의 것이라도, 전례를 지향하여야 한다. 한 성당에서 다른 성당으로 이어지는 행렬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공동체가 천상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렬은 부적절하거나 변질적인 요

346. 『로마 주교 예식서』, *De sacra communioe et de cultu Mysteriorum eucharistici extra Missam*, 101; 교회법 제944조; 앞의 주 162 참조.

347. 「성무일도 충지침」, 213 참조.

소를 피할 수 있도록 교회의 감독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행렬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성가와 찬가를 부르고 악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신자들은 행렬을 하는 동안 촛불이나 등불을 들고 행렬을 한다. 걷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간에 쉬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 또한 인생 여정을 반영하는 것임을 명심한다. 행렬은 모든 성덕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영광송과, 주교나 사제, 부제의 축복으로 마무리한다.

인간학적 관점에서, 행렬은 그것이 하나의 ‘공동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참석자들은 기도의 분위기에 동참하고, 함께 노래하며, 한마음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은 서로 간의 결속을 경험하며,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열중한다.

제7장 죽은 이들을 위한 대리 기도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

248. “죽음 앞에서 인간 운명의 수수께끼는 절정에 이른다.”³⁴⁸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러한 의문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변화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요한 3, 16) 하려고 성부에게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한 마지막 날에 당신께서 그를 들어올릴 것이다.”³⁴⁹ 라고 말씀하신다.

하느님 말씀에 기대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영원히 사시는 것과 같이, 의인들도 죽은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을³⁵⁰ 굳게 믿고 희망한다.

249.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교 계시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348. 사목 현장, 18항.

349. DS 150; 『로마 미사 전례서』, 미사 통상문,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350. 『가톨릭 교회 교리서』, 989항.